



“산림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 회장
inabi58@mfcf.or.kr

산림은 깨끗한 물, 맑은 공기, 수려한 풍경 및 안락한 쉼터를 제공해주는 천혜의 자원이며, 수천 수만년 동안 산과 숲을 이용한 생활과 문화의 발전이 곧 인류 문명 발전의 기틀 중 하나가 되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의 미래가 산림에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산과 숲을 이용한 건강한 생활과 슬로우 문화가 급속도로 발전한 산업화로 인해 잊혀지고 있고, 이 때문에 무한한 자원인 우리의 숲이 방치되거나 숲과 산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는 인간의 무자비한 개발행위로 인해 결국, 폭우나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산림환경 훼손과 주거 시설 파괴 등 사회·문화 전반적으로 문제의 심각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11년 서울시 우면산 산사태가 16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으며, 같은 해 춘천시 마적산 산사태로 대학교 자원봉사자 등 13명의 젊은 생명을 잃은 뼈아픈 경험을 했다.

산사태 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고 저감시키고자 산림청과 산림조합 등은 전국 산지를 대상으로 오래전부터 사방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러한 사방사업은 우리의 미래인 산림과 숲을 보존하고 개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반기술이다.

사방기술은 일제강점기 시대부터 유입되어 한국정부 주도로 사방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었으며, 6.25 직후 황폐화된 자연산지를 치산녹화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성공적인 녹화를 이룬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사방댐 등의 사방기술은 안전 위주의 계획과 획일적인 재료 및 디자인으로 인해 자연친화적이기 보다는 삭막한 콘크리트 구조물로서의 이미지가 강한 것이 현실이다.

사방사업의 외부목적이 안전과 방재에 있다면 그 내부목적은 지속가능하고 조화로운 환경보존에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방기술의 특성상 안전을 기본 바탕으로 하되 생태의 보호 및 보전, 자연과의 조화, 주민 친화 등을 종합하는 개념을 넘어 환경·사회적인 영역까지 포괄하는 융·복합 개념의 “한국형 환경보전사방기술”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입이 절실하다.

즉 산림은 가꾸어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보존중심과 무조건적인 안전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산림의 보존과 개발이라는 두 가지 전략이 융합되어야 한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해서는 산지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중심으로 발전되어 있는 사방기술을 환경과 생태까지 고려할 수 있는 디테일한 부분까지 고려 가능한 수준으로 한 차원 발전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사방사업의 위치·규모·공법 등을 결정하는 계획단계 시 안전을 어느 정도 확보하되 환경을 고려하여 보존할 수 있는 구역을 국지·광역적으로 선정하고, 이 구역의 경우 사방시설을 최소화 또는 환경파괴를 최소화 하는 공법으로 안전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사방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사방댐의 경우 해당 위치 상하부 계류의 생태를 단절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하며, 배수로 역할을 하는 계류보전의 경우 계곡에 서식하는 양서파충류 등의 습지생물의 서식환경 파괴에 유의하여 그 위치와 규모 선정 및 시공방법을 효과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산지재해복구 시 주로 추진하는 산림녹화의 경우 해당 지역의 산림생태를 잘 파악하여 자생 수종을 보호하고 인근 산림생태계 파괴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현재의 기술로는 산림의 보존과 개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룰 수 없으므로 치밀한 계획과 장기적인 정책을 통해서 이루어야 하며, 안전과 환경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사방기술의 연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안전을 우선해야하는 구역설정의 조사 및 판단방법, 환경을 우선해야하는 구역설정의 조사 및 판단방법, 안전과 환경을 동시에 고려해야하는 구역에서의 판단기준 등,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기술의 연구개발이 절실하다.

반대로 안전을 무시하고 환경보존만을 주장하는 사고방식도 개선하여야 한다. 생태계 측면에서 양서파충류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생명도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각 분야에 대한 서로의 이해, 조화로운 판단 및 합리적인 선택이 중요한 상황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인간의 욕심에서 기인한 이상기후로 인해 각종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비단 산사태뿐만 아니라 지진, 태풍, 가뭄, 병충해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결국 인명피해 및 자연환경훼손이라는 화살로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다.

지금 우리의 시대는 개발과 보전을 동시에 추진하여야 한다. 미래성장의 동력은 산과 숲, 산림에

서 찾을 수 있다고 확신 한다. 그 예를 스위스에서 찾았다. 스위스의 산림면적(124만5000ha)은 강원도(136만9000ha)보다도 작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위스는 산악관광 수입이 연 35조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관광수익 18조원의 두 배에 가깝다. 2014년 우리나라 국토면적에서 산림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3.7%(636만9000ha)로 OECD 국가 중 핀란드, 일본, 스웨덴에 이어 네 번째로 높다. 그만큼 산림을 통한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우리도 할 수 있다. 헐벗은 민둥산을 푸르른 산림으로 바꾼 저력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다. 스위스도 했던 일, 우리나라도 지금 시작한다면 충분히 더 발전할 수 있다.

작게는 사방기술의 패러다임 변화를 시작으로 환경보존과 산림개발의 융·복합을 통해 산림산업과 산림문화 전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산림과 숲의 새 시대를 반드시 열어야 하며, 그 일에 산림조합이 앞장 서겠다.

산림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